

# 다아트 구성에 대한 비교고찰\*

- 하반신 의복을 중심으로 -

## The Comparative Consideration of the Dart Design\*

- Centering on Trousers and Skirt -

조선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정옥임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sun University

Professor : Ok Im Jung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및 내용

III. 결과 및 해석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 Abstract >

Western clothing is adjusted to the figures of the human body unlike Korean traditional clothes. For this adjustment, we need a method, known as dart, to reasonably adjust a wide circumference to curves of the human body. So far, there has been some research in the aspect of clothing engineering on how to decide darts of skirts or trousers, but no theoretical research has yet been conducted on how to decide the number and amount of dart, which has caused difficulties in beginners' understanding of dart. Furthermore, there is no consistent drawing method for the number and amount of darts in existing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Therefore, to develop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darts, this study identified the amount and number of darts for waist girth of 66-72cm and a hip girth of 86-102cm. Wh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waist girth and the hips girth, including margins, is above a minimum of 26cm, two darts can be designed, but when the difference is below 24cm, one dart is necessary. The amount of darts increases by 0.5cm for every 2cm increase of the hip girth to the waist girth. In addition, as darts become longer, the cutting of the waist line becomes smoother. For one, rather than two, darts the curve of the waist line is steeper.

Corresponding Author: Ok Im J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Dong-gu, Gwangju, Korea

Tel: 82-62-230-7391 Fax: 82-62-232-8122 E-mail: oimjung@chosun.ac.kr

\* 본 논문은 2004년도 조선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was assured that when belts are curved through adjustment to the waist line of skirts or slacks, their composition can be stable. Therefore, in basic teaching about slacks and skirts, the number and amount of the darts should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girths of the waist and the hip. This difference should be a minimum of 24cm, but if it is below 24cm, the number of darts needed is one.

**주제어(Key Words):** 교수 학습방법(Teaching Learning), 다아트구성(Darts Construction), 다아트갯수(Darts Number), 다아트분량(Darts Excess)

## 1. 서론

옷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을 이용해 만들거나 본이 없이 만드는 옷이다.

의류산업이 발달하면서 옷을 만드는 기본원형이나 방법도 많이 변화발전 되어 왔고 지금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된 내용을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다양하여 숙련된 사람이 아닌 학습자가 학습자료로 이용할 때 확연하지 못한 내용으로 인해 이해하는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학습방법을 통해 다양한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먼저 제시해줌으로써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매개체가 곧 교수·학습 자료이다. 교수란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하고 학습은 유기체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유기체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연숙, 2002) 또 학습자란 교육적 기능을 가진 제도적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사람으로 국한시킨다고 볼 때 가장 알맞은 조건이 어떠한 것인가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선택하고, 선택된 학습의 상황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복과는 달리 서양의복은 대체로 인체의 형태에 맞추어 의복이 구성된다. 따라서 요철로 되어 있는 인체의 형태에 맞추어 의복을 구성하려면 적은 둘레에 대한 넓은 둘레의 여분을 인체의 요철에 맞추어 무리 없이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다아트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는 복부, 뒤에는 둔부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으로부터 웨이스트에 걸쳐서 여

분이 남아 뜨게 되는데 이렇게 남은 부분을 접는 것이 다아트분이다. 다아트는 평면인 옷감을 인체로 구성하여 형태를 이루는 역할을 하며, 다아트를 넣음으로써 여분이 남지 않도록 하여 미적효과와 더불어 기능성을 나타내주는 이점이 있다.(일본문화여자대학, 1984) 따라서 인체의 치수차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므로 다아트를 이해하려면 인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인체에서 허리나 복부의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평면의 옷감을 입체적인 인체에 피복하기 위해서는 다아트로 여분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조형적 설계로 구성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복부와 복부에 피복 되는 의복이 아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아트의 설계가 더없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실측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치수에 의해 산출되는 다아트 분량에는 엉덩이 둘레에 더해지는 여유분 까지 가산된 차이치수로 산출되어야 하므로 제도에서의 다아트의 분량과 다아트의 갯수, 다아트의 길이는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수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아트에 관련된 연구는 정옥임(1985)의 다아트 위치설계와, 오정석(1980)과 임원자·최현숙(1981), 김경순(1993) 등의 스커트 원형연구를 통해, 그리고 조성희(1982), 이효진(1986), 박영득·서영숙(1993)과 박재경·임원자(1994) 등의 슬랙스 원형연구를 통해 다아트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다아트만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허리둘레 치수에 따라 다양 할 수 있는 엉덩이둘레 치수,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 나타나는 차이치수로 학습자를 위한 다아트의 분량과 다아트의 갯수, 옆선 컷트분

량 설정방법을 제시해보고, 아울러 허리둘레 곡선의 형태에 따른 허리벨트구성도 논의해 봄으로써 초보 학습자의 학습효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내용

### 1. 연구방법

하의에 대한 허리 다아트의 분량과 갓수, 그리고 길이설정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고자 대학교재에 준하는 교수·학습자료에서 슬렉스와 스커트제도의 산출식을 두루 비교해보고, 또 20세부터 24세까지의 여자 평균허리치수이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국가기능 자격시험 치수인 허리둘레 66cm, 엉덩이둘레 92cm의 치수를 이용하여 다아트의 분량, 다아트의 갓수를 산출방법으로 비교고찰하고, 또 실제 제도를 통해 다아트가 1개일 때와 2개일 때의 허리선의 형태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연구의 내용으로는 하반신 의복에서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치수를 기본으로 하여 다아트량과 다아트 갓수의 설정방법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더불어 다아트 갓수, 다아트 분량이 허리둘레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아트 구성이 1개 또는 2개가 가능한 범위에 드는 차이치수 26cm를 표본 치수로 하여 엉덩이둘레 92cm, 허리둘레 66cm, 엉덩이길이 18cm일 때 1개, 또는 2개의 다아트를 적용하여 실험제도하고 이를 차이치수 24cm가 되는 허리둘레 68cm와도 비교하여 허리둘레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도 고찰하여 허리형태에 따른 허리벨트의 구성방법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하반신에 걸치는 교육용 슬렉스와 스커트의 기본패턴 산출식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아트의 위치설정이나 조형성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다아트의 분량은 최소 2cm부터 최대 3.5cm, 다아트의 길이는 최소 7cm부터 교수·학습자료의 평균치인 13cm까지를 범위로 하였는데 계측값에는 다소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허리벨트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제도된 실험패턴도 계측값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도 제한적임을 밝혀둔다.

### 용어 해설

- Kp = 김효숙패턴(김효숙, 1998)
- Dp = 도재은패턴(도재은, 1996)
- P.Lp = 박혜숙·이명희패턴(박혜숙·이명희, 1999)
- L.lp = 이순원·임원자패턴(이순원·임원자, 2001)
- Lp = 이영숙패턴(이영숙, 1992)
- Ip = 임원자패턴(임원자, 2000)
- Ep = Esmod패턴(Esmod편, 1998)
- Rp = Rene Bergh패턴(Rene Bergh, 1998)
- Pp = 박혜숙패턴(박혜숙, 2000)
- Up = 일본문화복장학원패턴(유신문화사편역, 1996)
- Cp = 천중숙패턴(천중숙, 2002)

## III. 결과 및 해석

### 1. 다아트 분량과 다아트 갓수의 설계

인체는 개인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파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즉 계측에 의한 것, 사진촬영에 의한 것, 석고로 본뜨는 것, 각도에 의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인체를 가장 간단히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옷을 만들기 위해 인체의 각 항목을 계측했을 때 나타나는 계측 값이다. 예를 들면 스커트를 만들기 위해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계측했을 때 그 계측 값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계측 값의 비교로 두 항목간의 대소를 대략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아트의 분량으로 볼 때 다아트량이 많다는 것은 엉덩이둘레 치수와 허리둘레

〈표 1〉 다이어트의 갓수와 다이어트량 단위: cm

다이어트갓수	다이어트의 범위		총 합 량
1개일 때	2		2
	2.5		2.5
	3		3
	3.5		3.5
2개일 때	2	2	4
	2.5	2	4.5
	2.5	2.5	5
	3	2	
	3	2.5	5.5
	3	3	6
	3.3	2.5	

치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허리둘레에 비해 엉덩이둘레가 보다 크다거나 적다는 것은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스커트나 슬랙스에서 다이어트량의 정도와 다이어트 갓수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업용(김경순, 1993)에서처럼 스커트에 다이어트량을 미리 정해주는 방법에서는 엉덩이둘레 치수와 허리둘레치수의 차이가 다이어트량의 정도와 다이어트 갓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허리치수에 다이어트량을 미리 가산하여 설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용에서는 엉덩이둘레치수와 허리둘레치수의 차를 3등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김경순, 1993) 다이어트를 만들 수 있는 산출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의 〈표 1〉은 실험제도에서 다이어트 분량을 최소 2cm로 보고 엉덩이둘레 치수와 허리둘레치수의 차이로 본 다이어트의 갓수와 다이어트의 가능분량 추정범위를 예시한 것이고, 〈표 2〉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치수로 본 다이어트량, 옆선 컷트량, 그리고 다이어트 갓수의 추정값을 나타낸 것이다. 다이어트의 가능분량은 허리둘레에 따른 엉덩이둘레의 차이치수가 결정하게 되는데, 차이치수가 2cm 늘어날 때마다 제도상 산출식은 0.5cm씩 커지게 되어 다이어트량과 옆선 컷트분량 설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2〉에서 나타내고자한 것은 차이치수를 최소 다이어트량 2cm로 계산했을 때 다이어트의 분량과 갓수

〈표 2〉 둘레차이치수로 본 다이어트 갓수와 컷트분량 범위 단위: cm

H-W의 차이치수	제도상 차이치수	컷트량=차이치수 - 다이어트량범위	컷트량에 포함된 다이어트 갓수여부
H-W = 20일 때	20 ÷ H/4 = 5	5-2=3	1 개
		5-2.5=2.5	
		5-3=2	
H-W = 24일 때	24 ÷ H/4 = 6	6-2=4	4-2=2(2개)
		6-2.5=3.5	1개
		6-3=3	
		6-3.5=2.5	
H-W = 26일 때	26 ÷ H/4 = 6.5	6.5-2=4.5	4.5-2=2.5(2개) 또는 4.5-2.5=2(2개)
		6.5-2.5=4	1개
		6.5-3=3.5	
		6.5-3.5=3	
H-W = 28일 때	28 ÷ H/4 = 7	7-2=5	5-2=3(2개) 또는 5-2.5=2.5(2개)
		7-2.5=4.5	4.5-2=2.5(2개) 또는 4.5-2.5=2(2개)
		7-3=4	4-2=2(2개)
		7-3.5=3.5	1개

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이어트가 한 개일 때의 최소 다이어트 분량을 2cm로 보았기 때문에 두 개가 될 수 있는 최소 다이어트 분량은 4cm가 되므로 차이치수에서 다이어트 분량을 뺀 값과 여분의 분량에서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컷트 해낼 수 있는 최소값을 최소의 다이어트 분량으로 했을 때 6cm 이상이면 다이어트는 두 개를 넣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두 개의 다이어트 분량은 최소 4cm에서 최대 8cm 범위 안에 들게 되고,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치수로 보면 6cm~10cm범위 안에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개의 다이어트를 넣을 수 있는 엉덩이둘레치수와 허리둘레차이치수는 최소 24cm이상인 되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이치수 24cm이상이면 반드시 2개의 다이어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1개의 다이어트로도 가능하나 대신 다이어트의 분량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측치수 값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둘레에 여유분을 가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표 3〉 다아트량 범위와 갯수, 길이의 범위

단위: cm

다아트량범위	다아트갯수 (총갯수)	다아트 길이				비 고
		앞		뒤		
		제1다아트범위	제2다아트범위	제1다아트범위	제2다아트범위	
2~35	1(4)	7~10	6~9	8~11	7~10	H-W=20-22일때
4~5.5	2(8)	7~10	6~9	8~11	7~10	H-W=24-30일때

만약 차이치수로만 보면 다아트를 한 개 넣어야 할 체형이더라도 여유분에 따라 다아트의 분량에 차이만 있을 뿐 두 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리둘레가 68cm이고 엉덩이둘레가 90cm인 사람의 다아트를 위한 여유분은 22cm이다. 차이치수 22cm는 다아트가 1개밖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2개의 다아트를 넣고자 할 때는 차이치수가 최소 24cm는 되어야하므로  $24\text{cm}-22\text{cm}=2\text{cm}$ 로 부족한 분량이 2cm가 된다. 이를 엉덩이치수에서 보충하고자 하면  $H/4+0.5\text{cm}$ 의 여유분이 되어야 한다.

## 2. 엉덩이둘레치수의 가감에 따른 다아트 분량의 변화

인체는 형태상 둘레로 볼 때는 타원형에 가깝고 좌우는 대칭으로 되어 있지만 앞과 뒤는 다르다. 앞은 복부로 대체로 밋밋하고 뒤는 둔부가 돌출되어 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돌출의 정도는 다르지만 돌출의 정도는 다아트 길이에 영향을 미치고 뒤 허리선의 파임에도 영향을 미친다.

피복 조형상에서 허리선은 최소 복위의 위치, 즉, 인체를 앞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잘록한 부위를 수평으로 한바퀴 두르는 선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뒷면에서 보면 그 수평 위치는 약간 높아 실제의 잘록한 부분은 그보다 상당히 밑인 사람이 대부분이다.(심부자, 1996) 그 때문에 뒤 허리선 파임은 앞, 뒤 허리높이의 치수차이를 적용하여 1.5cm(임원자, 최현숙, 1981)로 하고 있다. 여기에 옆선을 올려 줄 경우 실제 뒤 허리 파임은 더 깊어진 형태가 된다.

의복설계를 전제로 한 체표기능에는 피트, 프리, 액션, 디자인의 기능(나가자와스무, 나미향, 김정숙역, 1999)이 있는데 다아트 길이도 다아트 분량과

같이 인체의 형태 즉 복부와 둔부의 형태에 따라 길이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허리둘레가 굵지 않고 배가 나온 사람은 다아트량이 다소 많은 편이고 다아트 길이가 짧으며, 허리둘레가 굵고 배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다아트 분량은 적고 길이는 길어진다. 이렇듯 다아트의 길이와 분량은 인체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그러나 표준치수로 제도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아트를 만들 수 있는 여유분이 정해져 있고, 이용되는 다아트의 길이범위가 있다. 〈표 3〉은 다아트의 최소길기와 최대길기를 앞은 7cm에서 10cm까지, 뒤는 8cm에서 11cm까지를 범위로 하여 다아트 길이를 다아트 갯수와 분량에 따라 허리둘레의 차이 값을 비교해 본 결과 차이치수가 20~22cm일 때와 24~26cm일 때 다아트량과 다아트 갯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3. 다아트 갯수의 변화와 허리둘레선의 형태

하반신 의복에서와 같이 허리에서 지지되는 의복은 허리치수에 가감되는 여유분이 필요하지 않지만 엉덩이둘레나 너비에 있어서는 기본적 측정값 외에 유행에 따라 가감되는 여유분이 다르므로, 가감되는 여유분에 따라 다아트의 분량에 다소의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엉덩이둘레치수는 뒤 허리선의 기본파임, 예를 들면 엉덩이가 나온 사람은 밋밋한 사람에 비해 뒤 허리선을 더 내려주기도 하여 파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허리둘레치수와는 차이 값에 의해 결정되는 다아트의 분량이나 다아트 갯수에 영향을 미치지기 때문에 엉덩이둘레치수에 따라 허리둘레 형태도 영향을 받게 된다.

〈표 4〉는 엉덩이둘레에 따른 허리둘레의 여유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엉덩이둘레와

〈표 4〉 엉덩이둘레 변화로 본 다이어트 분량의 변화

단위: cm

허리둘레 범위	엉덩이둘레와의 차이치수	다이어트 가능 분량	다이어트 갯수	제도에서 허리둘레 계산식	제도에서 엉덩이둘레 계산식	비 고
66~72	20	2.5(3)	1	$W/4+2.5(3)$	$H/4$	
	22	3	1	$W/4+3$	$H/4+0.5$	
	24	3(3.5) 4	1 또는 2	$W/4+3(3.5)$ 또는 $4(2, 2)$	$H/4+1$	다이어트 1개 또는 2개 가능
	26	4.5	2	$W/4+4.5(2, 2)$ 또는 $(2.5, 2)$	$H/4+1.5$	
	28	5	2	$W/4+4.5(2.5, 2)$	$H/4+2$	
	30	5.5	2	$W/4+5.5(3, 2.5)$	$H/4+2.5$	

〈표 5〉 교수·학습자료에서의 슬렉스 다이어트 산출식 비교

단위: cm

	Kp	Dp	P · Lp	L · Ip	Lp	Ip	Esmod	Rene' Bergh
엉덩이 둘레 산출	$H/4+1$ (앞) $H/4+0.5$ (뒤)	$H+2.4/4$ (앞, 뒤)	$H/4+1$ (앞, 뒤)	앞: $H/4-0.5+1$ 뒤: $H/4+0.5+1$	$H/4-1.5$ (앞) $H/4-1.5$ (뒤)	$H/4+0.5-1$	$H/4+1.5$ (앞, 뒤)	$H/4+2$ (앞) 18cm 엉덩이 길이 앞점에서 $H/2+4$ 의 반원 (뒤)
허리 둘레 산출		$W/4+0.6+0.6+3.5$	$W/4+$ 다이어트분	$W/4+3$ 0.5	$W/4+2.5$ (앞) $W/4+5$ (뒤)	$W/4+2.5$ 내외		
다이어트 위치 설정	앞 1	7.5cm 들어감	옆선에서 6.5cm 들어감	주름선		앞 주름선	앞 주름선	
	앞 2	1다이어트와 3.2cm 간격		주름선과 옆선을 이등분				
	뒤 1	10			$W/8$			
	뒤 2	1다이어트와 3.2cm 간격			뒤허리넓이의 이등분점	1다이어트와 이등분점	뒤허리넓이의 이등분점	
다이어트 길이	앞 1	7.5	7.5(6)	주름처리	12	8	10	10
	앞 2			8				
	뒤 1	12.5		13	13	14~15	13	10
	뒤 2	12.5		11		11~12		15
다이어트 분량	앞 1	1.2	3.5			5	2cm내외	3.5
	앞 2	1.2						2.5
	뒤 1	2.5	2.4~2			3	3cm내외	3
	뒤 2	2.5				2		2
바지 옆선	0.6cm 올림	0.6cm 허리파춤	0.5cm 올림	0.6cm 올림	1cm 올림			0.6cm 파춤
앞중심선	0.6cm 파춤	1.2cm 허리선으로 들어감	0.7cm 허리선으로 들어감	0.5cm 허리선으로 들어감	0.5cm 허리선으로 들어감			1.25cm 허리선으로 들어감
뒤허리높이			1.5~2			1~2		
벨트 넓이		4	3~4	3cm내외				
허리기 초선		$W/4$	$H/4+1$	$H/4-0.5+1$ (앞), $H/4+0.5+1$ (뒤)		$H/4+0.5-1$		

허리둘레의 차이치수가 2cm 커짐에 따라 다아트의 분량은 0.5cm씩 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다아트 분량의 증가는 다아트 갯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분량이 많아질 수도 있어 허리둘레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교수·학습 자료에 나타난 설계치수

〈표 5〉는 바지의 다아트 설계가 교수·학습 자료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표 6〉에서 보면 어떤 원형은 세목에 대한 설계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한국인의 평균키로 볼 때 치수의 대소 차가 큰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아트 길이에서 보면 앞 다아트가 최소 7.5~12cm로 4.5cm의 차를, 뒤다아트는 12.5~15cm로 2.5cm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길이로 유추해 본다면 앞 다아트에서 7.5cm 다아트 길이는 12cm에 비해 배가 나왔거나 허리가 굽음을 나타내고, 뒤 다아트에서 15cm는 엉덩이가 편평한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 다아트 분량에서는 앞 다아트를 1.2~3.5cm로, 뒤 다아트를 2~3cm로 설계하였는데 〈Kp〉는 한 개의 다아트량으로 수용할수 있는 분량 2.4cm를 2개의 다아트로 배치한 것을 볼수 있다.

옆선에서는 타원형태인 허리선에 맞추기 위해 원형설계자의 인체과악 접근방법에 의해 올려주거나

〈표 6〉 표준치수로 산출했을 때의 교수·학습자료의 슬렉스 산출값

단위 :cm

		Kp	Dp	P·Lp	L·Ip	Lp	Ip	Esmod	Rene Bergh
기본선 산출식(I)	앞	H/4+1	H/4+0.6	H/4+1	H/4-0.5+1	H/4=0.5-1	H/4=0.5-1	(H/2 1/5) +(2 1/4)	H/4+2
	뒤	H/4+0.5			H/4=0.5+1				
허리선 산출식(II)	앞	W/4+5	W/4+0.6 +0.6=3.5	W/4+2	W+1/4+ (3±0.5)	W/4+2.5	W/4+2	W/4+6	W/4+1.2
	뒤	W/4+7	W/4+0.6+ 0.6+2~2.4	W/4+3	W+1/4+ (3.5±0.5)	W/4+5	W/4+3	W/4+3	W/4+2
엉덩이둘레 92cm 일때산출값(III)	앞	24	23.6	24	23.5	23.5~24	23.5~24	20.7	25
	뒤	23.5			24.5				
허리둘레68cm 일때산출값(IV)	앞	22	21.7	19	19.75~20.75	19.5	19	23	18.2
	뒤	24	20.2~20.7	20	20.25~21.25	22	20	20	19
(III)-(IV)= 옆선컷트분량	앞	2	1.9	5	3.75~2.75	4~4.5	4.5~5	-2.3*	6.8*
	뒤	0.5	3.4~2.9	4	4.25~3.25	1.5~2	3.5~4	0.7	6
(I)-(W/4)= 실제여분량	앞	7	6.6(-1.2)	79(-0.7)	6.5(-0.5)	6.5~7(-0.5)	6.5~7	3.7	8(-1.25)
	뒤	6.5	6.6	7	7.5	6.5~7	6.5~7	3.7	8
여분량으로 본 다아트추정량	앞	5	4.5	5	4.5	4.5~5	4.5~5	2	5.5
	뒤	4.5	4.5	5	5~5.5	4.5~5	4.5~5	2	5.5
옆선컷트분량	앞	2	2.1	2	2	2	2	1.7	2.5
	뒤	2	2.1	2	2.5~2	2	2	1.7	2.5
제도상에서의 다아트량	앞	2.4	3.5	2	2.5~3.5	5	2내외	6	2.5
	뒤	5	2~2.4	3	3~4	5	3내외	3	2
제도상에서의 다아트갯수	앞	2	1	1	1~2	2	1	2	1
	뒤	2	1	1	1~2	2	1	1	1
여분량으로 본 다아트갯수	앞	2	2	2	2	2	2	1	2
	뒤	2	2	2	2	2	2	1	2

\*( )의 숫자는 앞중심선에서 허리선 쪽으로 컷트분량임.

〈표 7〉 교수·학습자료에서의 스커트다아트 산출식 비교

단위: cm

		Kp	Dp	P · Lp	Pp	Up	L · Ip	Lp	Cp
영덩이들 래선산출	앞(I)	H/4+1.5	H/4+1.2	H/4+0.5	H/4+0.5	H/4+1	H/4+0.5	H/4+0.5	H/4-0.6+1
	뒤(II)	H/4+0.5	H/4	H/4-0.5	H/4-0.5	H/4	H/4	H/4+0.5	H/4+0.6+1
앞허리둘레선 산출(III)		W/4+0.5	W/4+0.6+0.5	W/4+0.6+1	W/4+0.6+1	W/4+0.5+1	W/4+0.5+0.5	W/4+0.5	W/4+0.6+1+앞 허리선 다아트 분량 각각1cm
(I)-(III)의 차이값		6.5	5.5	4.4	4.9	5	5	5.5	5.3
뒤허리둘레선 산출(IV)		W/4	W/4-0.6	W/4+0.5-1	W/4+0.5-1	W/4+0.5-1	W/4+0.5	W/4+0.5	W/4-0.6+1+뒤 허리선다아트 분량 각각1.2cm
(III)-(IV)의 차이값		6	6.1	5.5	5.5	6	5	5.5	6.7
앞다아트량 산출값		4	2.75	1.9~1.4	2.4~1.9	3.2	3.2	1.5~2cm 확정제시	2cm확정제시
뒤다아트량 산출값		3.5	4	3~2.5	3~2.5	4	3.2	5(2,3)cm 확정제시	2.4cm 확정제시
옆선올림		0.6	0.3	0.7	0.7~1	0.7		1	0.6
앞허리선내림			0.6				0.7		
뒤허리선내림		0.6	1.2	0.5~1	0.5~1.5	1	1.5 0.5		3
다아트 길이	앞	8~10	10~11	8 7	9		10	7~9	7~8
	뒤	11~13	12~15	13~14 11~12	10.5 12~13		12	11~13 13~15	10~12
다 아 트 위 치 설 정	앞		허리선의 이등분선	옆선에서 2.5~3cm들어 가 차이치수의 3 등분이용		남은허리선을 3등분하여결정	옆선에서6~8cm들 어가1.5~2cm다아트	앞중심선에서 6.5cm들어간점	
	뒤		뒤중심선 에서 6.5cm 들어간점		옆선에서4cm 들 어가 2cm 다아 트, 뒤중심선에 서 6cm들어가 3cm 다아트		뒤중심선에서 6.5cm들어 2cm 간격으로 결정		
스커트 제도상길이			스커트길이- 벨트넓이/2	스커트길이- 벨트넓이/2	스커트길이- 벨트넓이/2	스커트길이- 벨트넓이/2			
옆선커트 분량		2.5	(I)-(III) × 1/2(앞) (II)-(IV) × 1/3(뒤)	2.5~3	2.5~3	(영덩이산출값 -허리둘레 산출값) × 1/3	(영덩이산출값 -허리둘레 산출값) × 1/3	(영덩이둘레- 허리둘레) × 1/2	2
비 고									뒤폭이 더 큼

내려주기도 하는데 자료에서 보면 대체로 0.5~0.6cm 옆선을 올려주고 있으나, <Lp>는 1cm를 올려주고 있다. 옆선의 올림과 내림은 앞 중심선 컷트량과 관계를 지으면서 허리선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Kp>처럼 옆선을 0.6cm 올려주고 또 앞 중심선에서는 다시 0.6cm를 깎아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앞 허리선이 1.2cm파여진 것과 같거나 옆선을

1.2cm 올려준 것과 같게 된다.

스커트와 달리 슬랙스에서는 앞 중심선에 컷트 분량이 있다. 앞 중심선 컷트 분량은 대개 0.5~0.7cm로 설계되었지만 <R>과 <Dp>은 1.2cm정도로 높게 잡아 복부의 곡면에 대응하기 위한 치수로는 다소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스커트와 달리 슬랙스에서는 다아트 분량이 많거나 아예 없애고 싶을 때 앞



〈표 8〉 표준치수로 산출했을 때의 스커트 다아트의 분량과 갯수 비교

단위: cm

		Kp	Dp	P · Lp	Pp	Up	L · Ip	Lp	Cp
엉덩이둘레-허리둘레산출값	앞(I)	6.5	5.5	4.4	4.9	5	5	5.5	5.3
	뒤(II)	6	6.1	5.5	5.5	6	5	5.5	6.7
다아트량 산출값	앞	4	3	1.4~1.9	1.9~2.4	3.2	3.2	1.5~2(제시값)	2(제시값)
	뒤	3.5	4.3	2.5~3	2.5~3	4.2	3.2	5(2, 3)(제시값)	2.4(제시값)
옆선커트분량(III)		2.5	2.5(앞) 1.8(뒤)	2.5~3	2.5~3	1.8	1.8	2.5	2
산출값으로 본 다아트 갯수	(I)-(III) (앞)	2개(2,2) (2.5,1.5)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II)-(III) (뒤)	2개	2개	1개	1개	2개	1개	2개	1개
비 고	앞							다아트량이 1~1.5cm남음	1.3cm 다아트량으로 제시값보다 0.7cm부족
	뒤							다아트분 2cm부족	0.1cm부족

밑위 중심선에서 일부의 다아트 분량을 조정하거나 긴 바지에서처럼 생략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양여자들처럼 볼륨 있는 하체일 때는 적용에 무리가 없지만 맛만한 형에서는 앞 치골 위에 주름이 잡히고 입었을 때 외양이 매끄럽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벨트의 넓이는 옷의 총 길이에 포함된 값이다. 그래서 3cm~4cm의 벨트넓이일 때 이 값은 계산된 밑위길이에서 빼고 제도를 하게 된다. 만약 벨트의 넓이를 빼지 않고 원형설계를 한다면 벨트의 넓이만큼 길이가 추가되는데 다른 옷에서는 길이에 영향을 주지만 바지에서는 특히 밑위길이가 그만큼 길어져 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원형설계의 기초가 되는 허리둘레선은 제도방법에 따라 기초선 없이도 제도할 수 있지만 제시된 것을 근거로 살펴보면 허리에 가산되는 다아트분이 2.5cm에서 4.2cm로 다아트 분량으로 보면 <Dp>를 제외하고는 한 개로 설계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와의 차이치수에 의해 다아트의 갯수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P.Hp>처럼 인위적으로 다아트 분량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차이치수가 배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은 <표 5>

의 슬랙스 다아트의 산출식을 근거로, <표 8>은 <표 7>의 스커트 다아트의 산출식을 근거로 하여 허리둘레 66cm, 엉덩이둘레 92cm에 최소 2cm의 여유분을 주고 다아트 분량, 다아트 갯수, 그리고 옆선 컷트 분량을 비교해 본 것으로 여기에서 보면 허리 기본 산출식에 의한 다아트 갯수와 차이치수에 의한 다아트 갯수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슬랙스의 다아트 갯수에서 <Kp>는 뒤판에서 옆선의 컷트 분량이 0.5cm, <Ep>는 0.7cm이면서 다아트는 2개이고 <P.Hp>와 <Wp>는 다아트를 1개로 설계함으로써 여분의 분량을 옆선에서 컷트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허리둘레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나비에 의한 변화보다는 주로 두께의 변화에 의하여 초래(임원자, 최현숙, 1981)된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허리에서 둔부대로 흐르는 곡면이 완만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있어 많은 옆선 컷트 분량은 실루엣을 만들어 내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Lp>도 실제 여분량 6cm~7cm에 앞판 옆선 컷트 분량이 4cm~4.5cm이고, 뒤판이 1.5cm~2cm일 때 제도상 다아트 갯수는 앞이 1개, 뒤가 2개로 설계되어야함에도 앞 뒤 모두 2개로 설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스커트에서는 <Kp>가 스

〈표 9〉 다아트 갯수와 다아트 길이에 의한 허리파임정도

단위: cm

제도치수와 차이값	다아트 갯수	다아트 길이				허리파임정도		비 고
		앞		뒤		앞	뒤	
66-92=26	1	10		11		4	5.3	(1) 허리치수가 같고 다아트 갯수가 1개일때 다아트 길이가 1cm씩 길어지면 허리파임은 앞뒤 0.5cm 정도 적어짐. (2) 허리치수가 같고 다아트갯수가 2개일때 다아트 길이가 1cm씩 길어지면 뒤파임은 0.5cm, 앞파임은 0.3cm 적어짐. (3) 다아트 길이가 같을 때 다아트 갯수는 뒤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1		12		3.5	4.8	
68-92=24	1	10		11		3.8	5.3	
		11		12		3.2	4.8	
66-92=26	2	앞1	10	뒤1	11	4.2	5.3	
		앞2	9	뒤2	10			
	2	앞1	11	뒤1	12	3.9	4.8	
		앞2	10	뒤2	11			
68-92=24	2	앞1	10	뒤1	11	3.8	5.3	
		앞2	9	뒤2	10			
	2	앞1	11	뒤1	12	3.5	4.8	
		앞2	10	뒤2	11			

커트 뒤 다아트량 3.5cm에 2개의 다아트를 제시하고 있고, <Lp>는 앞 다아트 갯수가 2개의 분량인데 1개로 처리함으로써 다아트량이 1~1.5cm가 남게 되고, 반면에 뒤 다아트분은 2cm가 부족한 편이다. <Cp>는 앞 다아트 분량을 2cm로 제시했는데 오히려 0.7cm가 부족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숙련된 사람일 경우, 다아트나 커트량의 가감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미숙한 학습자가 다아트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 5. 다아트가 만들어낸 허리선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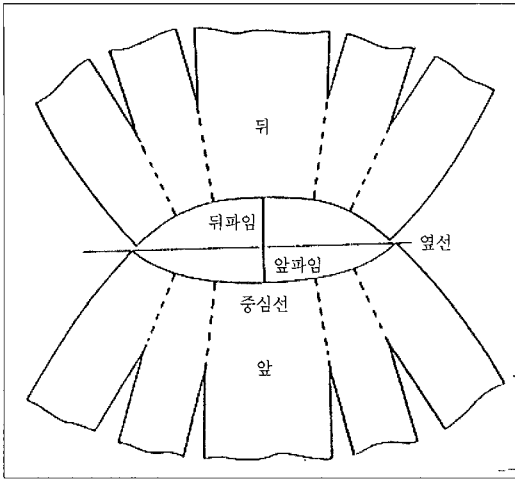
의복설계를 위한 체표기능에는 피트, 프리, 액션, 디자인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반신 의복에서 다아트와 관련된 기능은 피트존으로 허리선을 기점으로 하여 전면의 하복부, 측면의 상전 장골극부, 뒤쪽의 대둔부를 연결하는 라인의 범위(나가자와 스무, 나미향, 김정숙역, 1999)로 이 부분은 슬렉스와 스커트의 허리가 피트 되는 부위이며 지대부이므로 하반신 의복의 대부분은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적합성이 요구된다.

다아트와 관련된 피트존에서의 다아트 길이, 다아트 분량, 다아트 갯수에 따라 허리둘레선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제도는 시각적 공간분할로 본 다아트 위치설정에서 기능적인 면에서의 위치와 시각적인 면에서의 위치가 일치하여 타당성을 제공한(정옥임, 1985) 연구를 기초로 중심선에서 6.5cm 떨어진 곳에 1개의 다아트 위치를 설정하였고, 2개의 다아트일 때는 3등분하여 제1다아트 제2다아트를 정했다.

다음 <표 9>는 다아트에 의한 허리선의 형태변화를 알아 보기위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국가 기능자격시험치수인 허리둘레 66cm, 엉덩이둘레 92cm를 기본치수로 하여 다아트가 1개일 때는 3.5cm 다아트에 옆선컷트 3cm로, 다아트가 2개일 때는 2.5cm, 2cm 다아트에 옆선컷트 2cm로 하였고 뒤판 허리내림은 2cm, 옆올림은 0.7cm로 통일하였다. 이 실험제도결과에 의하면 허리치수가 같고 다아트 갯수가 1개일 때 다아트 길이가 1cm씩 길어지면 허리파임은 앞뒤 모두 0.5cm 정도 적어지고, 같은 허리치수이면 다아트 갯수가 2개일 때 다아트 길이가 1cm씩 길어지면 뒤파임은 0.5cm, 앞파임은 0.3cm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아트 길이가 같을 때 다아트 갯수는 뒤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래 <그림 1>은 <표 9>의 결과를 얻기 위한 앞, 뒤 파임의 계측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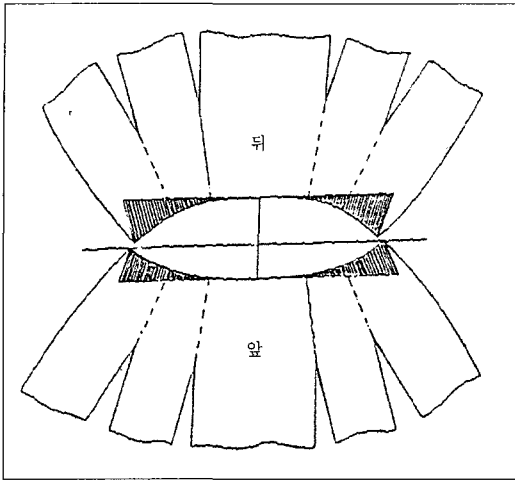
<그림 1> 앞, 뒤 허리파임의 실측점

### 6. 허리둘레선과 벨트형태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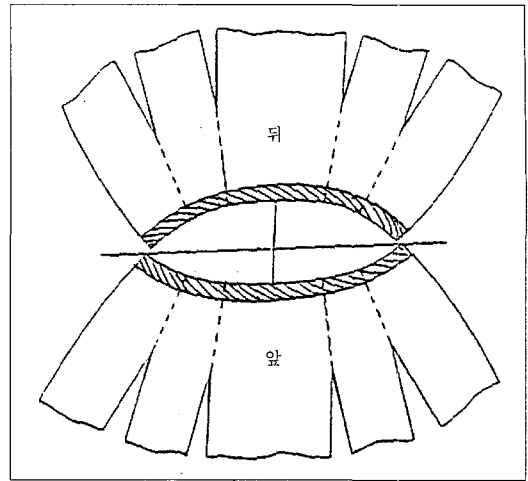
인체에서 의복구성을 위한 계측점은 원칙적으로 골격에 있어서 돌기, 골단, 절흔 등을 기준(정옥임, 2002)으로 하지만 용기부나 돌기부가 없는 허리둘레에서는 인체를 앞면에서 보았을 때 허리부분에서 가장 안쪽으로 잘룩한 위치를 지나는 수평둘레선(심부자, 1996)을 허리둘레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뒷면에서 보면 그 수평 위치는 약간 높아 실제의 잘룩한 부분은 그보다 상당히 밀인 사람이 대부분이다(심부자, 앞의논문) 이 때문에 스커트나 슬랙스에서 조형되는 벨트를 직선으로 만들게도 된다.

슬랙스나 스커트에 벨트를 붙이는 목적은 바느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의복의 무게로 인한 형태를 지지하기 위해서, 또 여밈의 기능적 목적을 위해 벨트를 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벨트를 단다고 할 때 먼저 이해하여야 할 것은 허리둘레선에 대한 위치설정과 허리둘레선을 기준으로 상하부분에 대한 형태과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슬랙스나 스커트에 이어지는 벨트가 허리선 아래에 걸쳐지는 것인가 허리선 위에 있어지는 것인가가 정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허리둘레선이 복부의 가장 잘룩한 부분이라고 볼 때 스커트 길이에 벨트가 포함 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는 벨트구성 뿐만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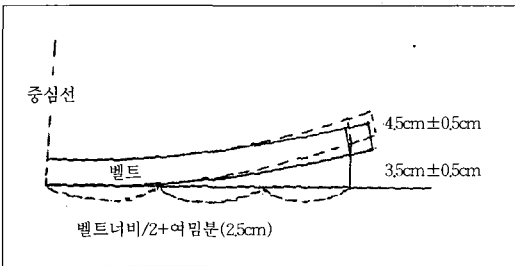
라 슬랙스나 스커트의 길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만약 벨트의 너비가 3cm라고 할 때 완성된 슬랙스나 스커트에서 벨트의 최상단이 허리선에 위치해야 한다면 슬랙스나 스커트의 길이는 3cm만큼 길어지게 되고 특히 슬랙스에서는 밑위길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슬랙스나 스커트를 제도할 때 스커트길이에서 벨트너비를 빼주어야 함은 물론 다아트의 길이에 벨트너비가 포함되므로 실제 하반신의복 구성에서 다아트길이는 그만큼 짧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허리벨트의 형태도 직선이 아닌 복부의 곡면에 맞는 곡선형태로 벨트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벨트가 허리둘레선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면 벨트너비는 슬랙스나 스커트의 길이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대개의 교수·학습 자료의 스커트나 슬랙스제도에서 볼 수 있는데 스커트에서는 <Kp> <Up> <Lp> <Cp>가 있고, 그 외는 스커트길이에서 벨트너비의 1/2을 뺀 값으로 설계하고 있어 오차범위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허리둘레선을 기점으로 인체의 형태를 볼 때 위나 아래 모두 허리둘레선 보다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벨트의 위치설정과 제도방법은 교수·학습 방법에서 통일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림 2>는 슬랙스나 스커트의 허리둘레 형태에 직선벨트를 비교해 본 것으로 허리둘레의 형태에 직선벨트를 달 경우, 빗금 부분만큼 조형상에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뒤 허리둘레처럼 곡선이 보다 심할수록 인체의 복부 면에 밀착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3>은 복부의 가장 잘룩한 곳 까지를 하반신 의복 길이로 보았을 때 허리둘레 형태에 맞는 곡선벨트 제도법이다. <그림 9>의 허리파임 계측값을 기초로 곡선벨트를 응용하여 제도해 본 것이 <그림 4>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벨트너비를 길이에 포함시키는 여부는 길이뿐만 아니라 형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수·학습법에서는 이에 대한 설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길이에서 벨트너비 값을 뺀 치수를 이용하여 제도한 후 벨트부분을 컷트하여 다는 방법<그



〈그림 2〉 허리둘레선과 직선벨트



〈그림 3〉 허리둘레선과 곡선벨트



〈그림 4〉 응용곡선 벨트제도(앞과뒤)

림 3)이 교수·학습법에서 정확하다고 본다.

#### IV. 결론 및 제언

한복과는 달리 서양의복은 대체로 인체의 형태에 맞추어 의복이 구성된다. 따라서 인체의 형태에 맞추어 의복을 구성하려면 적은 둘레에 대한 넓은 둘레의 여분을 인체의 요철에 맞추어 무리 없이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다아트이다. 다아트는 평면인 옷감을 인체에 맞게 구성하여 형태를 이루는 역할을 하며, 다아트를 넣음으로써 여분이 남지 않도록 하여 미적효과와 더불어 기능성을 나타내주는 이점이 있다. 하반신 의복에 있어서 다아트

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와의 차이로 결정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수·학습 자료에서 보았듯이 다아트 설정에 대한 내용은 다양하고 다아트의 갯수나 다아트의 분량 설정에서 기준이 모호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다아트 설정에서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치수를 적용한 다아트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차이치수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math>P \cdot Lp</math>나 <math>Pp</math>, <math>Lp</math>처럼 다아트량이 1.5cm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도 안될 것이며 인위적으로 1개 또는 2개로 설정하여 이 치수 값에 맞도록 가감해도 안될 것이다. 다아트는 계측값의 차이치수에 의해 다아트 갯수가 결정되고 다아트 분량, 옆선 컷트 분량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스커트나 슬랙스길이에서는 벨트넓이까지 포함된 구성으로 보아야 하므로 벨트의 구성은 곡선으로 설계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교수·학습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학생이 보다 쉽게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학습의 효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아트에 대한 체계적 접근방법을 모색해, 학습자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해 보고자 다아트의 설정에서부터 다아트의 갯수, 다아트의 분량에 대해 분석 고찰함과 동시에 그동안 애매하게 다루어져 왔던 벨트의 구성상 설정을 정의

해 보았다.

하반신의복에서 다아트는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값을 인체의 형태를 고려하여 조형적으로 배분하여 만드는데, 지금까지 교수·학습 자료에서는 다아트 갓수와 다아트량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제도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다아트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을 위해 허리둘레 66~72cm, 엉덩이둘레 86~102cm일 때의 다아트 분량과 다아트의 갓수를 알아본 결과 허리둘레치수와 여유분을 포함한 엉덩이둘레치수의 차이치수가 22cm 이하일 때는 1개의 다아트 밖에 설계할 수 없으며, 24cm일 때는 1개, 또는 최소 2개의 다아트를 구성할 수 있어 2개의 다아트를 만들어내고자 할 때는 적어도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치수가 24cm이상일 때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알기쉽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다아트 분량과 갓수 산출방법)

$((\text{엉덩이둘레치수}-\text{허리둘레치수})\div 4 = \text{여분량}) \times 2$  또는  $3$ (다아트분량과 갓수, 옆컷트분량)  
또는  $(H/4-W/4 = \text{여분량}) \div 2$  또는  $3$

※ 예) 엉덩이둘레가 90cm이고, 허리둘레가 66cm일 경우. 다아트의 갓수  
 $90\text{cm}-66\text{cm}=24\text{cm}$ ,  $24\text{cm}\div 4=6\text{cm}$ ,  $6\text{cm}\div 2=3$ (2cm다아트 2개와 2cm옆선컷트분)  
 $6\text{cm}\div 3=2$ (3cm다아트 1개와 3cm옆선컷트분)  
다아트분량과 옆선 컷트분량은 조정가능함

그리고 다아트의 분량은 허리둘레에 대해 엉덩이둘레 치수가 2cm씩 증가함에 따라 0.5cm씩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다아트 갓수가 1개일 때 다아트 길이가 1cm씩 길어지면 허리파임은 앞뒤 모두 0.5cm 정도 적어지고, 같은 허리치수이면서 다아트 갓수가 2개일 때 다아트 길이가 1cm씩 길어지면 뒤파임은 0.5cm, 앞파임은 0.3cm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아트 길이가 같을 때 다아트 갓수는 뒤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로 미루어보면 다아트 갓수는 뒤허리선의 형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벨트구성에 있어서도 벨트의 너비는 스커트길이

나 바지 길이에서 뺀 값을 적용해야 길이나 밑위길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잘록한 허리형태에 순응하는 벨트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하위단계의 학습자에게는 슬랙스나 스커트의 다아트 구성이 보다 이해하기 쉬워야 하기 때문에 각자의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치수에 의해 다아트의 분량과 다아트의 갓수가 산출되도록 하는 제도방법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며 상위단계의 숙련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인위적 가감에 의한 다아트 설정의 교수·학습 방법은 지양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김경순(1993). 체형에 따른 스커트 원형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465.
- 김효숙(1998). 의복디자인과 패턴구성. 서울: 경춘사, 218.
- 나가자와스스무, 나미향, 김정숙공역(1999). 의복과 체형. 서울: 예학사, 116.
- 도재은(1996). 패턴디자인 및 제작법. 서울: 신광출판사, 258.
- Rene' Bergh (1998). Dessinez et adaptez Patrons, Italy: Flammarion, 29.
- 박영득, 서영숙(1993). 하지동작에 따른 슬랙스 구성 요인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7(4).
- 박재경, 임원자(1994). 슬랙스 원형의 밑위 앞뒤길이 여유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5).
- 박혜숙, 이명희(1999). 서양복구성. 서울: 수학사, 171.
- 박혜숙(2000). 피복구성학. 서울: 경춘사, 211.
- 심부자(1996). 피복인간공학. 서울: 교문사, 166.
- 심부자(1996). 피복인간공학. 서울: 교문사, 236.
- ESMOD (1998). METHODED DE COUPE, 서울: Esmod edition, 436.
- 오정석(1980). 실루엣터에 의한 하반신 체형 계측과 스커트 패턴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연숙(2002). 가정과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신광출판사, 347.

- 이영숙(1992). 패턴연구 1. 서울: 경춘사, 220-221.
- 이순원, 임원자(2001). 의복구성원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8.
- 이효진(1986). 노년기 여성의 슬랙스 제작을 위한 원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일본문화복장학원편(1988). 피복구성학. 서울: 유신문화사편, 188.
- 일본문화여자대학편저(1984). 서양피복구성학 1. 서울: 유신문화사, 69.
- 임원자, 최현숙(1981). 스커트 제작을 위한 원형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2), 21-33.
- 임원자(2000). 의복구성. 서울: 교문사, 190.
- 정옥임(1987). 계량적 체형연구와 시각적 공간분할로 본 다이어트 위치의 조형적 설계. 대한인간공학회지, 6(1).
- 정옥임(1985). 계량적 체형연구와 시각적 공간분할로 본 다이어트 위치의 조형적설계. 중앙대학교 원 박사학위논문. 59.
- 정옥임(2002). 인체와 의복공학. 수학사, 114.
- 조성희(1982). 슬랙스 제작을 위한 원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천중숙(2002). 패턴설계의 기초. 서울: 수학사, 96-111.

(2004년 11월 2일 접수, 2005년 3월 9일 채택)